

기반 확충 최우선...정부 보조금 아닌 실질적 지원책 절실

**2022년 대선의 해
신 균형발전 원년으로**

광주일보·광주전남연구원 공동기획

<9> 지역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문화콘텐츠 산업마저 수도권은 물론 부산과 대구 등이 점령하면서 '문화 수도' 광주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다. 광주와 전남의 문화콘텐츠 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수를 모두 합해도 전국 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추진중인 초실감 융합콘텐츠 제작기지 조성 사업과 전남의 디지털 애니메이션

문화산업 사업체수·종사자 수

광주·전남 합쳐도 전국 최하위

매출액 서울 77조 전남 4500억

금융·펀드 등 간접지원 확대해야

센터 조성 사업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콘텐츠 전문가들은 또 광주·전남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사 등을 기반으로 하는 이야기 산업을 육성하고, 가칭 '국립 작가원' 설립, '이야기 대전' 개최 등 다양한 콘텐츠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17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콘텐츠 산업의 지역별 사업체 수를 보면 서울 소재 사업체수가 3만 4725개로 전체 사업체 수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 2만802개(19.8%), 부산 5885개(5.6%), 대구 5195개(4.9%) 등의 순이다. 반면 광주는 3319개(3.2%), 전남은 2400개(2.3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매출액에선 수도권 편중 현상이 더 심했다. 실제 같은 기간 서울지역 업체들의 매출액은 77조 3909억원(64.8%)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경기도 25조 4726억원(21.3%), 부산 2조 3722억원(2.0%), 대구 1조 8780억원(1.6%)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1조 341억원(0.9%), 전남은 4562억원(0.4%)로, 양 지역을 모두 합해도 대구시에도 못미치는 1.3%에 불과했다.

콘텐츠 산업 종사자수도 서울 소재 업체 종사자가 34만 363명(53.5%)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12만 8888명(20.3%), 부산 2만 1751명

(3.4%), 인천 1만 8612명(2.9%), 대구 1만 8188명(2.9%) 순이었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1만 2028명(1.9%), 6,818명(1.1%)였다.

콘텐츠 산업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선 정부의 장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우선 지역별 맞춤형 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중점 사업을 발굴하는 게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또 지역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접지원(금융, 투자펀드 조성, 인력 양성 체계 구축, 지역 콘텐츠 특화 지원 등)을 확대하고, 지역 콘텐츠 업체들이 현 하드웨어(장비, 시설, 공간) 중심 구조를 탈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지역 콘텐츠 기업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간접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하며, 보조금 지원 중심이 아닌 우수 인력

는 지원 구조가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선 정부 디지털 뉴딜사업에 적합한 지역 문화콘텐츠산업을 신성장 프로젝트로 발굴하는 등 정책적 집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역 문화 콘텐츠 활동가들은 광주시가 송암산단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실감콘텐츠 클러스터 집중 조성 및 전남의 순천 글로벌웹툰 센터 등과 연계한 디지털 애니메이션 센터 조성, 광주·전남의 오랜 역사와 스토리를 활용한 이야기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문화연구실 민인철 책임연구원은 "광주·전남지역의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지역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접 지원 확대와 우수 인력 공급, 신성장 프로젝트 발굴 지원, 광주시와 전남도의 정책 지원 등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민주 대선주자 4차 TV토론 격돌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왼쪽부터),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정세균, 이낙연 후보가 17일 서울 상암동 DDMC에서 채널A 주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

기자협회 57주년 축하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에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자들은 '진실'의 기반 위에서 '자유'와 '책임'으로 균형을 잡으며 민주언론의 길을 걸어왔다"며 "57년 역사의 자취마다 사명과 헌신을 새겨온 모든 기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한국기자협회는 '기자협회보' 폐간 등 숭한 역할에도 굴하지 않았고, 강제해직된 동료들과 함께 독재권력에 맞섰다"며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기자들의 용기와 열망이 뿌리가 되어 오늘날 한국언론은 세계언론자유지수 아시아 1위라는 값진 성과를 일궈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며 "언론환경에 디지털화와 같은 변화의 물결이 거세질수록,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가 더욱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언론이 끊임없는 비판과 성찰로 저널리즘의 본령을 지켜낸다면 국민들은 자유를 향한 한국언론의 여정에 굳건한 신뢰로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기자들이 써 내려간 모든 문장은 영원히 기억될 시대의 증언"이라며 "정부는 여러분이 전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1964년 박정희 정권이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시도한 언론윤리위원회법 파동 과정에서 창립됐다. 일선 기자들은 그해 8월 17일 기자회견을 결성해 입법 반대에 앞장섰고, 야당과 사회단체의 동조 움직임이 확산하자 정부는 결국 언론윤리위원회법을 폐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

1800명 규모 이재명 정책자문단 '세바정2022' 오늘 출범

여권 성향 학계 인사들 포진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돕는 1800여명 규모의 정책자문단 '세바정2022' (세바정2022)이 18일 공식 출범한다. 주로 학계 내 여권 성향 인사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 세 모이를 통해 대세론 굳히기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이 지사의 열린캠프는 17일 오전 정책포럼 세바정2022 출범식 영상을 18일 유튜브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도 축하할 계획이다.

참가자 면면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당내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이 지사의 정책공약을 총괄해온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을 비롯해 노무현 정부 출신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문재인 정부 내각에 참여한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공동대표로 조지를 이끈다. 이어 강신철 한남대 교수, 김기석 강원대 교수, 김동규 동명대 교수, 김현희 서울대병원 권역응급센터 진료교수, 임운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자문위원, 허민 전남대 교수도 공동대표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정책 고문단에는 한완상 전 통일부 총리,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참여한다. 이밖에 박순성 전 민주정책연구원장,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 김윤태 우석대 교수도 주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자문단은 강명구 뉴욕시립대 교수, 강정민 전 원자력안전위원장, 김성일 예비역 육군 중장, 박노백 전 주러시아 대사,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이종오 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임혁백 고려대 명

예교수,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황인국 예비역 육군 대장 등으로 구성됐다.

통일부의 대표적인 정책통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논의를 위한 대북특사로 파견됐던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도 자문단에 참여했다.

이 포럼은 정부 각 부처에 상응하는 20여개 분과 위원회와 주요 정책별 TF(태스크포스), 연구단 등을 포함해 총 40여개의 정책생산 단위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또 출범선언을 통해 ▲전환적 공정성장 ▲기본소득 ▲콘텐츠 산업 육성 ▲복지·교육 강화 ▲4차산업혁명 및 에너지·녹색전환 선도 ▲사법·행정·언론개혁 ▲균형외교·자주국방 ▲자치분권 균형발전 확대 등 정책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카자흐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서 토 키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19주년!!

2021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상장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